

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

전용식 선임연구위원

요약

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염좌 및 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 염좌 및 긴장 환자의 1인당 1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대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검토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한방병원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서 건강보험보다 높은 35%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.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와 병행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비급여 진료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

-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증환자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하여 인대나 근육 손상(염좌 및 긴장)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혼합진료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을 검토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¹⁾
 - 경증환자 치료에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
 -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
 - 자동차보험 주요 경증환자인 염좌 및 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, 이와 유사하게 건강보험 경증환자에 대한 혼합진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
 - 10개의 염좌 및 긴장 관련 상해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(12.0%)와 더불어 근골격계질환(도수치료 등)에 대한 비급여 실손의료보험금도 연평균 6.8% 증가함²⁾
 - 본고에서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1인당 1일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검토함

〈표 1〉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급여, 비급여 진료비 현황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2021	2022	2023	2021~2023년 연평균 성장률
건강보험 급여비용	10,861	12,094	13,631	12.0
건강보험 보험자 부담금	7,582	8,421	9,488	12.0
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	78,742	78,587	80,126	0.9
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중 근골격계질환 치료(도수치료 등)	20,315	20,590	23,156	6.8

자료: 통계청: 금융감독원
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4. 2. 4), “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”

2) 김진현(2022. 12. 8), “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”, 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

○ 전술한 비급여 물리치료인 도수치료와 병행되는 건강보험 급여 중 물리치료 진료비도 증가 추세를 보여 혼합진료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

- 염좌 및 긴장환자에 처방되는 주요 물리치료(표층열·심층열치료,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, 간섭파 전류치료 등)의 급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료금액을 검토함
-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질환 보험금이 6.8% 증가하였고 염좌 및 긴장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물리치료 가운데 간섭파전류치료도 2.3% 증가하여 혼합진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
- 표층열치료는 연평균 3.6%, 급여가 높은 간섭파전류치료는 2.3%, 전기자극치료는 3.3% 증가하였고 심층열치료,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는 감소하였으나 간섭파전류치료에 비해 금액이 적음

〈표 2〉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중 주요 물리치료 진료금액

(단위: 원, 억 원, %)

진료행위	급여	2021	2022	2023	2021~2023년 연평균 성장률
표층열치료	600	246.6	253.1	264.5	3.6
심층열치료	820	782.5	731.2	730.1	-3.4
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	2,440	146.5	135.1	133.7	-4.5
전기자극치료	2,820	22.3	21.6	23.8	3.3
간섭파전류치료	3,330	1,616.2	1,599.7	1,692.7	2.3
합계	-	2,814.1	2,740.7	2,844.8	0.5

자료: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

○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염좌 및 긴장 환자의 1인당 1일 진료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양방진료의 경우 입원에서, 한방진료의 경우 통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한방진료 명세서 455,235건, 양방진료 명세서 19,253건 가운데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, 본인부담금 등을 분석함
-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1일 진료비는 양방진료가 입원(58.6만 원)과 통원(12.7만 원)에서 한방진료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(입원 20.2만 원, 통원 7.0만 원)
- 양방(의과)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더 다양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

〈표 3〉 건강보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현황

(단위: 만 원, %)

구분	양방(의과)진료		한방진료	
	통원	입원	통원	입원
진료비	12.7	58.6	7.0	20.2
비급여 진료비 비중	58	73	33	24

주: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한방진료 명세서 455,235건, 양방진료 명세서 19,253건 가운데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, 본인부담금 등을 분석한 결과임

자료: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

○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~14급 경상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한방진료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

-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와 양방진료 명세서를 2021년부터 2023년간 연간 5,000건을 추출하여 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를 산출함(표 4) 참조
-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찾기는 어렵지만 한방진료의 경우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비명세서를 조사하여 비급여 비중을 추산한 결과 통원과 입원 모두 35%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
- 한방병원 진료비명세서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방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병행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
 - 침술의 경우 급여인 경혈침술이 비급여인 약침술과 병행되고 한방물리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(급여)과 경근간섭 저주파요법(비급여)이 병행되는 경우 등임

〈표 4〉 자동차보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

(단위: 만 원, %)

구분	양방(의과)진료		한방진료	
	통원	입원	통원	입원
진료비	4.1	8.5	5.5	11.0
비급여 진료비 비중	-	-	37	35

자료: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

○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병행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

- 염좌 및 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의과(양방)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
-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 건강보험 의과(양방)진료와 유사한 혼합진료 현상이 관측됨
 - 건강보험 한방진료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급여 비중이 통원의 경우 35% 내외로 유사하지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입원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
-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임
 -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 3) “2.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”